

#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 기업 자유 보장에 최선”

尹 대통령, 상공인의 날 기념식 강연 최태원·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기업 대표·유공자 등 1000명 참석

“자유 공존방식 윤리·책임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호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취임 이후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 앞서 이영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훈장 14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17명, 총리표창 17명, 장관표창 150명)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펼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글로벌스타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교육·연금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

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기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의 공존 방식인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기업, 선도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크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 생태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

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기업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줄 부탁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 개선돼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상공의 날을 맞아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그 기반이 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며 “앞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세계로 뛰어가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위해 모두 힘차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중장년 임시직 OECD 1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줘야”

KDI, 1년미만 퇴직금 제도 도입 의견 55~64세 임시직, 男 33% 女 36% OECD 평균은 男 8%, 女 9% 불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임시고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들의 고용 불

안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보고서를 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했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넘는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에 불과했다.

이들 나이대에서 고임금·고속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총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가 32.2%, 25~54세 여자가 43.1%에 그쳤다. 같은 해 OECD 평균(각각 47.2%, 50.3%)에 크게

뒤졌다.

보고서는 국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장년층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임금이 15.1% 올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과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임금 상승률에 크게 앞섰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탓에 중장년층 정규직 채용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64세 남자 임금근로 경험자 중 생애주직장 정년퇴직자 비중은 26%에 머물렀다. 64세 여자 임금근로 경험자는 이보다 낮은 7%에 그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최우수 S등급 수상

## 싱싱함이 살아있는 기장시장으로 오세요!

기장시장은 80년 전통의 재래시장으로서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갓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현지에서 생산된 청정농산물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장군